

Digital Currency W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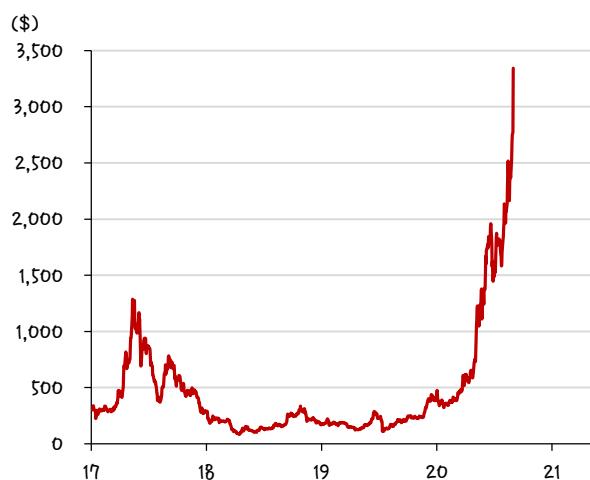


주식전략/시황. 한대훈 / 3773-8515, handaeoon@sksecurities.co.kr

2021/05/04

이더리움의 시간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 중인 이더리움



자료: REFINITIV, SK 증권

이더리움의 트랜잭션 수는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



자료: Etherscan SK 증권

이더리움이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3,200 달러를 넘어섰고, 국내에서도 400 만원을 돌파했다. 이제 가상자산 전체 시가총액의 15%에 육박할 정도로 빠른 상승세다. 이더리움은 지금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긍정적인 소식이 많이 전해진다. 지난 4월에 진행된 베를린 하드포크를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그 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받던 가스비(수수료)가 크게 절감됐다. 이를 기반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자료에서 이더리움은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수수료(가스비)와 처리속도가 느리다는 점은 단점이지만, 지난 4월의 하드포크 성공, 그리고 오는 7월에 예정된 런던 하드포크마저 성공한다면 문제점이 어느정도 해소되고, 이로 인해 이더리움의 생태계 확장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7월의 하드포크 때는 네트워크상 비용문제를 다룰 EIP-1599 가 업데이트 될 것으로 보여 기대감이 높다.

최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NFT, 디파이(DeFi)는 모두 이더리움 기반이다. 디파이의 고객예치금은 이미 760 억달러에 육박했다. 크리스티와 소더비 등 주요 경매사에서 NFT를 채택한데 이어, 세계 최대 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가 NFT 시장을 6월에 개설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이제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영역을 점차 확대중이다.

유럽투자은행(EIB)은 1 억유로 규모의 채권을 이더리움을 통해 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금융권도 넥스트 비트코인으로서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을 갖는 금융기관이 늘어나는 추세다. 즉, 플랫폼으로서의 기반에 걸림돌이 되던 수수료, 전송속도 등의 문제점들이 속속 해결되면서 영역이 더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이더리움을 주목해야 한다. 올해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자산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높다.